

순례자의 귀향

☞ 송태현 (이화여대 교수)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이자 변증가인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 그는 독특한 지적 편력을 지닌 저술가였다. 성공회 가정에서 자란 루이스는 아홉 살 때 암으로 어머니를 잃으면서 신앙의 회의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면 간절한 기도에도 왜 어머니가 고통 중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루이스는 학창 시절 내내 혼돈의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지적으로 정직한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929년 그는 유신론으로 돌아섰고, 1931년에는 기독교로 회심하였다.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 제3판 후기(後記)에서 자신의 지적 여정이 “대중적인 실재론(popular realism)에서 철학적인 관념론(philosophical idealism)으로, 관념론에서 범신론(pantheism)으로, 범신론에서 유신론(theism)으로, 유신론에서 기독교(christianity)로” 변화해 왔다고 요약한다.

10대에 에이츠와 메텔링크의 신비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심령 현상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의 주된 지적 입장은 유물론이었다.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버클리의 유신론적 관념론, 베르쿠손의 진화론적 관념론, ‘영국 헤겔학파’의 관념론 등에

경도되었다. 루이스는 다양한 관념론을 공부하던 중 브래들리의 사상을 접하게 되는데, 이 영국 학자는 힌두교의 브라흐만-아트만 사상과 유사한 범신론—모든 것을 포괄하는 절대자는 초월적 존재라기보다 자연에 내재된 존재라고 봄—을 주장했다. 다양한 지적 여정을 거쳐 온 루이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작가는 조지 맥도널드이다. 열여섯의 루이스는 조지 맥도널드의 『팬타스티스 Phantastes』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맥도널드의 작품을 읽고 즉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시작으로 에드먼드 스펜서, 존 번연, 조지 허버트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 작가들의 글을 꾸준히 읽게 되면서 그의 옛 신념과 철학은 조금씩 무너져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유신론을 향해, 그리고 중국에는 기독교를 향해 나아갔다.

『순례자의 귀향 The Pilgrim's Regress』(1933년)은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가 최초로 저술한 작품으로, 존 번연의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을 원형으로 창작한 알레고리 작품이다. 『천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나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 등을 지나 결국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순례자의 귀향』은 화자(話

者)가 꿈 내용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이다. 주인공 존은 고향인 퓨리타니아(Puritania)의 숲에서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한 섬을 안개 사이로 어렵게 본 후 갈망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섬을 찾아나서게 된다. 『천로역정』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하늘의 도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여정(progress)을 담고 있다면, 『순례자의 귀향』은 퓨리타니아에서 신비한 섬을 찾아 서쪽으로 나아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여정(regress)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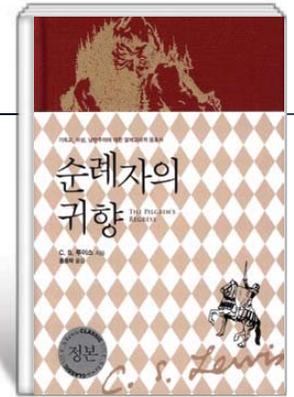
신비한 섬의 모습과 바다 건너서 들려오던 감미로운 음악을 갈망하던 존은 숲에서 알몸의 갈색 여자를 만난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존이 원하던 존재라고 말한다. 숲에서 종종 그녀와 육체관계를 가졌던 존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녀가 아님을 깨닫고 그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다. 섬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힌 존은 결국 깊은 밤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서쪽으로 향한다.

추위에 떨며 칠월같이 어두운 밤길을 재촉하여 아침에 주막에 도착한 존은 거기서 계몽(Enlightenment) 선생을 만난다. 계몽 선생은 존이 퓨리타니아에서 왔다고 하

자 지주(Landlord)를 두려워하며 자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존은 어려서부터 온 땅의 주인인 지주님에 대해 들었고 지주님이 금지하신 목록을 어기면 “큰 전갈들과 뱀들이 우글대는 검은 구덩이”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곤 했었다. 그런데 계몽 선생은 지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짐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낸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주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대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장담”하는 계몽 선생과 헤어진 후 존은 미덕(Virtue) 씨를 만난다. 그는 스스로를 지주의 굴레를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하지만 자신도 순례 중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한 규칙인 하루에 50km씩 걷는 일이라고 말한다.

미덕 씨와 동행하던 존은 미디어(Media)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 존은 한때 사랑했던 갈색 여자와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여성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온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녀도 자신과의 사랑이 바로 섬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



C. S. 루이스 저/홍종락 역 | 홍성사 | 2013년 11월

너는 존에게 아버지인 하프웨이(Halfways) 씨를 소개한다. 이 노신사는 “섬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쓰는 지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딸과 존이 서로를 품에 안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에서 섬을 발견했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미디어의 오빠가 등장하면서 이들 부녀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에 의하면 여동생은 그냥 갈색 여자이며, 아버지는 사실 푸쟁이라는 것이다.

이후 계속되는 여정에서 존은 양식(Sensible), 관대(Broad), 지혜(Wisdom), 그리고 은둔자인 역사(History)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의 여정은 신비한 섬으로 향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는데, 북쪽은 이성과 객관적 사고방식을, 남쪽은 상상력과 주관적 사고방식을 대변한다. 그리고 가운데 도로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더 멀리 갈수록 두 관점은 점점 더 극단화된다.

거대한 협곡(Grand Canyon)에 도달한 존과 미덕은 협곡을 건너기 위해 마더 키크(Mother Kirk: 어머니 교회)라는 노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마더 키크는 자신을 지주님의 며느리라고 소개하며 그 나라의 초창기 역사를 말해준다. 본래는 지주님과 그 자녀들이 직접 땅을 경작하고 목축을 했으나, 이틀만 누리기가 가까워서 젊은 부부에게 소작을 맡겼다. 그런데 그 땅에는 지주님이 자녀들과 내려와 일하다 목이 마르면 먹으려고 심어놓은 산사과 나무가 있었다. 그 과일엔 인간이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이었다. 지주님은 젊은 부부에게 농장 한복판에서 자라는 산사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농부의 아내가 원수의 꾀에 넘어가 하나를 따서 먹었고, 아내의 말을 듣고 농부도 하나를 따서 먹으려는 순간 지진이 일어나 북쪽에서 남쪽까지 땅이 죽 갈라지며 거대한 협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순례자의 귀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는 ‘갈망’이다. 존은 어렵פות이 드러난 갈망의 원천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마침내 그 갈망의 원천이 ‘지주님’인 것을 발견한다.”

협곡을 건너기 위해서는 마더 키크가 이들을 아래로 업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미덕은 스스로가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노파의 도움을 거절했다. 존도 노파의 제안을 거절하고 미덕을 따라 길을 찾아 나선다. 존은 북쪽과 남쪽을 각각 여행한 후 협곡 아래로 내려왔다. 그가 내려오는 모습을 왕관을 쓰고 홀(笏)을 잡은 마더 키크가 바라보고 있다. 협곡을 건너는 길을 찾지 못한 존은 그녀의 충고에 따르기로 한다. 그녀는 걸치고 있는 누더기를 벗고 머리부터 다이빙하여 물속 깊은 곳, 절벽 아래 있는 터널을 통과하여 건너편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계곡과 미디어를 비롯한 유명들이 나타나 노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혹하지만, 먼저 협곡 아래에 도착하여 뛰어 들 준비를 하고 있던 미덕의 권유를 듣고 그를 따라 물속에 뛰어든다.

미덕과 함께 협곡을 건너 존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섬을 보게 된다. 그들 앞에 한 안내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사실 그 섬은 퓨리타니아에서 지주님의 성이라 불리던 동쪽 산의 반대쪽 면이라고 말해준다. 그 산은 퓨리타니아의 동쪽에 있었으나 존은 집을 떠나 줄곧 서쪽으로 여행해 왔기에 다시 동쪽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안내자는 돌아가는 길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안내자가 말한 대로 존과 미덕은 땅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귀로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들은 차가운 용과 뜨거운 용을 만나 싸워야 했으며, 예상과 달리 좁고 험난한 여정이었다. 안내자는 그들에게 “인간에게 최악의 적은 안전”이라고 말해준다.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퓨리타니아로 돌아온 존은 부모님이 이미 개울을 건너 동쪽 산으로 건너갔음을 알게 된다. 안내자는 존에게 해지기 전에 그 역시 개울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말해준다.

『순례자의 귀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모티프는 ‘갈망’이다. 존은 어렵פות이 드러난 갈망의 원천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마침내 그 갈망의 원천이 ‘지주님’인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루이스의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파스칼의 전통과 연결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

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파스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허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신을 떠난 현대인에게도 C. S. 루이스적인 의미의 ‘갈망’은 존재한다. 현대인은 재물, 성, 명예와 권력 또는 안정된 직장을 갈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갈망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갈망의 원천은 하나님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전하러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그 갈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발견한데 대한 감격을 망각할 때가 많다. 또 갈망의 원천보다 모조품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갈망의 원천을 향해 다시 돌아가야 한다. 갈망의 원천보다 갈망의 모조품을 더 추구하는 현실이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고 나 자신의 비극이다.



송태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에서 문예비평이론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이미지와 상징』, 『판타지』가 있다.